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감정의 서사적 의미

- '외로움'이 만들어낸 몸을 중심으로

임정민*

〈차 례〉

1. 들어가며: 정동적 전회, '감정은 무엇을 하는가?'
2. '외로움'의 작동 방식과 그 효과
 - 1) 감정의 동질성에 기반한 몸의 접촉
 - 2) 감정의 비대칭성에 기반한 몸의 구분
 - 3) 감정의 적응성에 기반한 몸의 연결
3.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의 서사적 의미
4.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동적 전회' 이후의 감정 이론을 주요 비평적 시각으로 삼아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의 서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서사 전반을 가로지르며 주체의 몸과 관계에 어떠한 실천적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주목했다.

2장에서는 외로움의 작동 방식과 그에 따른 신체적 양상을 세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감정의 동질성에 기반해 몸이 접촉되는 과정을 통해 양생과 여인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을 넘어 주체들 간의 정동적 인력에 의한 필연적 만남임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감정의 비대칭성에 기반해 몸이 구분되는 과정을 통해 외로움이 신체에 각인되는 방식의 차이가 타자를 지향하는 태도의 차이로 이어지며 두 인물의 몸을 서로 다른 존재론적 층위에 위치시키고 있음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적응성에 기반해 몸이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개별적 감정이 어떻게 집단적 정동으로 증폭되어 인물들의 신체를 하나의 정서적 흐름으로 묶어세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과정은 ‘외로움’이 신체와 신체를 매개하는 실천적 에너지임을 증명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의 서사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외로움’은 양생으로 하여금 타자의 고통을 자기 신체에 각인시켜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지리산으로 은거하게 하는 ‘주체 전환의 매개성’을 지닌다. 또한 ‘외로움’은 서사의 특정 국면에서 단발적으로 소비되는 소재가 아니라 정동 경제의 회로를 형성하며 서사 전반의 필연성을 기인하는 ‘문학적 형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감정을 인물의 내면성이나 외부에 대한 반응과 같은 고정된 실체로 간주해온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감정을 주체의 몸을 형성하고 텍스트 내적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역동적인 기제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전기소설 속의 ‘외로움’을 동질적인 덩어리로 파악하던 기존 담론을 넘어 정동의 미시적 발현과 그 차이에 주목하는 새로운 장르 연구의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 <만복사저포기>, 정동적 전회, 감정, 순환, 효과, 외로움, 몸

1. 들어가며: 정동적 전회, ‘감정은 무엇을 하는가?’

일찍이 ‘감정’¹⁾은 예술·철학적 담론에서 예술의 의미를 규정하는 중요 요소로 논의되었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때 ‘감정의 표현’은 예술을 통한 미적 경험, 작품의 예술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감정’이란 용어는, 기존의 이론적 탐구에서 시도된 세부적 개념들, 다시 말해 느낌(feeling), 감각(sensation), 정서/정동(affect), 감성(sensibility)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감정(emotion)’을 지칭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감정’은 오히려 이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체적 감각, 감정, 사유를 인간 ‘경험’의 구별된 영역으로 ‘체험하지’ 않기 때문이다.”(사라 아흐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오월의 봄, 2023, 34쪽.) 오히려 감정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열 관계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구분 짓기보다 이들을 포함한 복합적인 실체로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적 성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²⁾ 고전소설 연구에 있어서도 감정은 작품의 내적 구조와 미학을 규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요소로 주목받아 왔다. 실제로 감정이 “인물 형상에서부터 사건, 배경, 주제, 문체, 수용 등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작동하며 작품의 미적 가치를 구현해내기 때문이다.”³⁾ 예술·철학적 논의와 고전소설 연구에서 감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우리는 최근 부상하는 감정에 관한 새로운 학술적 시각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데카르트 이후 서양의 사유 체계가 이성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이성의 대척점에 놓인 감정은 학문적 소외를 겪어 왔다. 그러나 근대적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이성 대 감정’의 이분법적 도식이 해체되면서 감정은 새로운 학술적 탐구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간의 감정연구는 방법과 대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는데, 이때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면 논의의 중심축이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감정연구 초기에는 ‘감정은 신체적 감각인가 아니면 인지 과정인가’라는 논쟁을 중심으로 감정의 실체를 확인

2) 이것은 ‘감정의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느끼는 마음의 동요를 이해 가능한 것으로 의식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감정의 표현은 감정의 해방을 가져 오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 느낌의 실체를 의식하게 되면서 어떤 고양된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하는 것을 뜻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어떤 종류의 감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다른 어떤 감정들과도 동일하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는 말들을 통해 그 감정을 개별화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술에 표현된 감정은 오직 그 작품을 통해서만 얻는 새로운 미적 경험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고, 작품에 나타난 예술적 성취를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감정에 대한 예술·철학적 시각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였다. R. G. 콜링우드, 김혜련 역, 『상상과 표현: 예술의 철학적 원리』, 고려원, 1996, 130~152쪽.

3) 정혜경,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감정 미학: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헌씨양옹쌍린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쪽.

하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⁴⁾ 이후 감정이 단순한 생리적 기제나 정보처리의 결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관성이 입증되면서 논의의 중심은 감정의 사회적 구성 요인으로 전이된다. 그러나 초기 감정사회학적 담론이 구조적 결정론에 경도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감정이론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최근의 논의는 감정을 단순한 문화적 산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아와 집단, 사회 규범을 능동적으로 재생산하는 실천적 동인으로 파악함으로써 감정의 구체적인 순환 기제와 그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이론적 경향은 이른바 ‘정동적 전회’⁵⁾로 명명되는데 해당 담론이 제기하는 방법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동적 담론은 감정의 ‘본질’이 아닌 ‘작용’에 주목한다. 즉 ‘감정은 무엇인가’라는 정의론적 물음에서 벗어나 ‘감정이 무엇을 하는가’라는 기능적 물음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동적 전회가 감정에 대한 생리학적 혹은 사회문화적 이해를 전면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을 넘어 존재론적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들 논의에서 감정은 ‘이러저러하게 구성되는 실체’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효과’로 재규정된다. 둘째, 본 담론은 ‘감정이 무엇을 수행하는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감정이 개인 및 집단의 몸을 형성하는 방식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정에 주목한다. 이는 ‘정동 경제(affective economy)’⁶⁾라는 개념으로 구체화

4) 테버러 럽턴에 따르면 감정이 개념화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초기연구를 중심으로 두 가지의 광범한 경향을 식별할 수 있다. 하나는 감정을 생물학적 본능이나 반응으로 이해하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상황에 대한 판단과 평가 같은 인지의 결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테버러 럽턴 지음, 박형신 옮김, 『감정적 자아』, 한울아카데미, 2016, 23~31쪽.

5) ‘정동적 전회’라는 용어와 더불어 이것이 함축하는 방법론적인 특징들은 다음의 책을 참고해 정리한 것이다. 알리 라라 외, 권명아 (외) 역, 『정동 연구 지도제작』, 갈무리, 2025, 23~59쪽; 사라 아흐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오월의 봄, 2023.

되는데, 이 개념은 감정을 개별 주체의 내면적 상태가 아니라 기호와 대상들의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발생하는 ‘효과’로 파악한다. 즉 특정 정동이 개인이나 집단의 신체에 고착(sticking)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동적 가치를 축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지닌 신체를 생산·재생산해내는가를 면밀히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정동적 전회는 감정의 순환 효과를 정치적인 층위에서 고찰한다. 이들은 감정의 순환을 통해 인간의 신체에 각인되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와 지배 양상에 주목한다. 즉 감정이 소수자 집단을 규율함으로써 주류 집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사회 규범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폭로하며 이를 통해 감정의 문화정치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경로를 탐색한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감정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토대로 〈만복사저포기〉⁷⁾에 나타난 감정의 서사적 의미를 재고찰해보고자 한다. 고전소설사에서 ‘감정’은 작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자 소설 장르의 성립 및 전개 과정을 기능하는 결정적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감정을 작품의 미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분기점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전기소설(傳奇小說)에 내재된 ‘고독감’ 혹은 ‘외로움’에 주목한 논의로부터 기인한다.⁸⁾ 이 글의 논의 대상인 〈만복사저포기〉 역시 이러한 전기소설의 미적 특질로서 ‘고

6) 사라 아흐메드(2023), 위의 책, 23~47쪽.

7)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다음의 책에 실린 〈만복사저포기〉임을 미리 밝혀둔다. 심경호 옮김,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8)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 전기소설 서사문법의 규명을 위한 예비적 작업」, 『민족문학사연구』 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5, 120~140쪽. 박희병은 〈만복사저포기〉를 포함한 8편의 애정전기소설을 대상으로 그 서사 문법을 고찰하며, 전기소설 특유의 인물 형상으로서 ‘외로운 인간’의 면모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러한 인물의 ‘고독감’이 전기소설만의 독자적인 결연방식을 도출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글은 기존 논의와 같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적 자질이 지닌 서사적 위상에 공감하면서도 텍스트 내 ‘외로움’의 작동방식과 그 효과에 집중함으로써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의 의미를 재고찰하려고 한다.

독감' 내지는 '외로움'을 체현한 작품으로 오랜 기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로 작품 속 '외로움'은 '고독', '소외' 등 다각적인 감정 어휘로 명명되며 텍스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자질로 인정받았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의 '외로움'은 텍스트의 내외적 근거에 의해 선형적으로 규정된 인물의 고정적 속성, 인물의 내재적 자질로서 다루어진 경향이 짙다.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소설 내적 근거와 외적 근거의 실체가 혼동되면서 오직 이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외로움'의 의미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것은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양생의 외로움을 해석하는 방식에 방외인 김시습의 외로움 또는 향유층인 남성 지식인층의 소외 같은 작품 외적 맥락이 착중되어 있기 때문이다.⁹⁾ 둘째로 그간의 논의들은 〈만복사저포기〉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작품을 형성하는 중요한 내적 논리라는 해석을 공유하고 있으나 '외로움'의 의미망이 단일하게 파악된 측면¹⁰⁾이 있다. 작품에 나타난 '외로움'을 남성 인물인 양생이 처한 상황에 집중해 인물의 고정된 내면적 자질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는 〈만복사저포기〉가 전기소설의 보편성 위에서 논의되었고 따라서 작품에 표현된 감정들이 이 작품의 향유층인 남성 지식

9) 전기소설이라는 장르의 장막 내에 있는 작품에 작품 외적 맥락이 과도하게 기입된 것에 대한 비판은 그간의 논의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어왔던 것이다. 예컨대 수이전 일문에 실린 작품 〈최치원〉에 대한 해석에 역사적 인물 최치원의 생애와 같은 작품 외적 맥락이 과도하게 기입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그러하다.

10) 이런 맥락에서 작품 내 고독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 백민정의 논의는 텍스트 내 감정을 다층적으로 이해해보려는 시도로 파악된다.(백민정,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고독'과 '사랑'의 심리학적 이해와 문학적 의미,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2007.) 다만 이 글에서는 양생의 고독이 변화하게 된 중요 기제로서 여인의 외로움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 아울러 양생의 외로움을 '수동적/주어진 고독'에서 '능동적/선택하는 고독'으로 이해하기보다 서사 전반에서 이 '외로움'이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의 계층적 특성이 배태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¹¹⁾ 그러나 텍스트 문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 여인의 외로움은 인물 간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주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양생과 여인의 감정은 서사 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교차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외로움’은 개별적 정서가 아닌 역동적 상호관계 속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간의 연구성과들은 그 자체로 해석적 타당성이 있고 〈만복사저포기〉를 이해하는 데도 기여한 바가 크지만 한편으로 ‘외로움’의 의미를 서사 외적 요인으로 환원하거나 남성 인물 중심의 편향적 해석으로 ‘외로움’의 서사적 의미를 축소 시켜 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의 의미를 재고찰하고자 한다. 〈만복사저포기〉의 서사 동력은 고정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정동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체적 반응을 유도하고 서사적 사건을 추동하는가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동적 전회’ 이후의 감정 이론을 주요 비평적 시각으로 삼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서사 전반을 가로지르며 주체의 몸과 관계에 어떠한 실천적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작품 내에서 ‘외로움’이 작동하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이 감정이 서로 다른 몸의 ‘접촉·구분·연결’에 영향을 미치는 서사적 효과를 낳고 있음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을 인물의 내면성이나 외부에 대한 반응과 같은 고정된 실체로 간주해온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감정이 주체의 몸을 형성하고 텍스트 내적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역동적인 기제로 파악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1) 윤재민, 「전기소설의 인물성격」,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5.

2. ‘외로움’의 작동 방식과 그 효과

본 장에서는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작동 방식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외로움’이 어떠한 기호들과 접합하며 의미화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미 생성 과정이 작품 내에서 어떠한 서사적 효과를 도출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1) 감정의 동질성에 기반한 몸의 접촉

일반적으로 서사 내 인물의 형상은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다층적으로 포착되지만 서두의 서술은 인물의 성격을 꺾는 첫 번째 단추가 된다. 이때 전기소설(傳奇小說) 자장 내에 있는 다른 작품들이 외모, 능력, 신분, 가문 등 외적 자질을 전면에 내세워 인물을 표상하는 것과¹²⁾ 달리 〈만복사저포기〉는 양생과 여인이 지닌 ‘감정적 자질’을 중심으로 인물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본 작품의 형성 원리로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단순한 정서를 넘어 핵심적인 서사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만복사저포기〉 서두에서 포착되는 외로움의 의미화 과정, 즉 다른 기호들과 연동되며 구체성을 획득하는 양상은 동일한 감정적 자질을 다루는 여타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성¹³⁾과도 유의미한 변별점을 지니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한다.

〈만복사저포기〉는 주인공 양생에 대한 서술로 문을 여는데 여기서 일관

12) 애정전기소설이라는 장르의 자장 내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초기의 작품들인 〈최치원〉,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 세 작품만 하더라도, 인물을 설명하는 데 감정적 자질이 우선되어 나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13) “양생이 내비치는 외로움을 불우한 문사의 고독감이라고 하기에는 문사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서술이 빈약하다”는 조혜란의 지적은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이 전기소설의 전형성으로만 이해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조혜란, 「〈만복사저포기〉와 〈봄뱀〉, 비추어 읽는 사랑의 서사」, 『탈경계인문학』 36, 이화인문과학원, 2025, 88~89쪽, 85~110쪽.

되게 강조되는 지점은 그가 ‘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전라도 남원(南原)에 양씨 성을 가진 서생이 있었다.

그는 일찍 아버이를 여윈데다가, 장가도 들지 못한 채, 만복사의 동쪽 방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¹⁴⁾

위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양생은 “일찍 아버이를 여윈데다가 장가도 들지 못한 채 만복사의 동쪽 방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다. 부모의 부재와 미혼이라는 사회적 조건, 만복사에서 독거리는 공간적 조건의 중첩으로 나타나는 양생의 상황적 맥락은 그가 ‘혼자인’ 상태 즉 그의 ‘물리적 고독’의 상태를 가시화한다. 이때 ‘물리적 고독’이란 수(數)와 관련된 물리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래 그 자체로 어떠한 가치 판단이나 주관적 정서를 내포하지는 않는 중립적인 상태를 지칭한다.¹⁵⁾

물리적 고독을 정서적 고독과 층위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은 작품에 나타난 ‘외로움’의 의미망을 미시적으로 규명하는데 유의미한 분석적 준거를 제공한다. 물리적 고독이 함의하는 다양한 의미망은 감정의 양태와 의미 변화를 추적해 온 일련의 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들 논의에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체적·물리적 경험으로서의 ‘홀로 있음’이 반드시 특정한 관념적·정서적 경험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¹⁶⁾ 즉 물리적 고립 상태와

14) 심경호(2000), 앞의 책, 59쪽. 이후부터의 인용문에서는 작품명과 쪽수만을 밝히도록 하겠다.

15) 라르스 스펜젠에 따르면 “혼자인(alone)’은 한 사람 주위에 다른 이들이 없다는 사태 외에는 지시하는 바가 없다. 반면에 ‘외로운(lonely)’에는 어떤 가치가 개입된다. 다시 말해 ‘혼자인(alone)’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 차원이 ‘외로운(lonely)’에는 포함되어 있다.” 라르스 스펜젠, 이세진 옮김, 『외로움의 철학』, 청미, 2019, 27쪽.

16) 알베르티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역사를 추적하기 위해 ‘외로움’, ‘고독’과 같은 단

인간관계의 결핍이나 상실에 따른 감정적 반응은 경험적으로 별개의 층위에 존재한다. 둘째, 물리적 고독이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정서적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세 신학적 전통에서의 ‘독대(獨對)’가 초월적 존재와의 친밀감으로 승화되거나¹⁷⁾, 세속의 소란에서 벗어난 고립이 상쾌함과 같은 정신적 고양감을 선사하는 사례¹⁸⁾는 물리적 고독이 긍정적 정서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이처럼 물리적 고립 상태와 그에 수반되는 정서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관점은 〈만복사저포기〉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특정 기호들과 접합하며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포착하게 하는 중요한 분석적 실마리가 된다.

다시 〈만복사저포기〉로 돌아와 양생의 물리적 고독이 서사 내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인물이 처한 객관적 상황이 제시된 직후 내면의 토로인 ‘시(詩)’가 배치되면서 물리적 층위의 고독이 정서적 층위의 외로움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루 배꽃나무 쓸쓸한 사람을 베풀어주나.
가련해라 달 밝은 이 밤을 허송하다니.
봄날 홀로 누운 외로운 들창가로
어디선가 그이가 통소를 불어보내나

물총새는 쌍을 못 이뤄 외롭게 날고

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18세기까지 ‘외로움’과 ‘고독’이 그저 홀몸 상태(aloneness)를 지시하는 단어였다는 것, 즉 정서적 측면의 의미가 없는 물리적 상태만을 지칭했다고 말한다. 페이 바운드 알베르티, 서진희 옮김, 『우리가 외로움이라 부르는 것에 대하여』, 미래의 창, 2022, 43~49쪽.

17) 라르스 스펠렌(2019), 앞의 책, 24~25쪽.

18) 이정은, 「외로움과 정치 혐오-한나 아렌트의 고독과 외로움의 의미 변화에 기초하여」, 『시대와 철학』 3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4, 101쪽.

원앙은 짝 잃고 맑은 물에 떡 감는다.
어느 집에 약속 있나 비둑돌 놓는 저 사람
한 밤 등불꽃으로 점치며 창 아래 시름하네¹⁹⁾

위는 양생이 직접 읊고 있는 시의 내용으로 이를 통해 그의 내면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여기서 양생은 스스로를 “쓸쓸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로 세월을 보내는 자신의 존재를 “가련하게” 여긴다. 주목할 점은 양생이 자신의 존재를 “쌍을 못 이룬 물총새”나 “짝 잃은 원앙”과 같은 외물(外物)에 투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서두에서 제시된 ‘혼자임’이라는 물리적 조건이 ‘짝의 부재’라는 결핍의 기호와 접합되면서 중립적 상태였던 고독이 비로소 정서적 고독으로 가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양생이 느끼는 정서적 고독의 층위가 앞서 언급한 ‘가족의 부재’나 ‘만복사에서 독거’라는 물리적 조건과 완전한 인과적 일치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 맺는 대상이 부재한다는 본질적 공통점은 물리적 상태와 정서적 반응 사이의 기호적 대응을 가능케 한다. 결국 양생은 누적된 물리적 고독의 시간을 경유하여 현재의 정서적 고독에 도달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만복사저포기〉에서의 ‘외로움’은 물리적 고독을 나타내는 기호와 정서적 고독을 나타내는 기호가 상호 접합하며 의미가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외로움’이 물리적 고독과 정서적 고독과 연결되면서 의미화되는 방식은 여인의 경우에도 공통되게 나타난다. 다만 양생의 ‘외로움’이 서술자의 외적 관찰(물리적 조건)과 인물의 서정적 토로(정서적 반응)로 이원화되어 제시되었다면, 여인은 부처에게 올리는 고백적 양식인 장사(壯詞) 통해 자신의 존재 조건과 내면의 결핍을 하나의 유기적인 서사 속에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장사(壯詞)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층위로

19) 〈만복사저포기〉, 59쪽.

나누어볼 수 있는데, ①전란의 상황과 이로 인한 가문의 피해, ②왜란 상황에서의 정절 수호, ③정절 수호 보상에 따른 격리적 독거, ④3년간의 고착된 고독과 존재론적 비애, ⑤결연을 향한 염원과 초월적 존재에 대한 발원이 그것이다. 여인의 장사(壯詞)는 왜란이라는 외부적 폭력(①, ②)으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격리(③)가 어떻게 정서적 상실(④)을 거쳐 욕망의 발원(⑤)으로 이행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이 정절을 그르치지 않았다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한적한 곳으로 피신케 하고 초야에서 임시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벌써 삼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둥근 달이 뜨고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상심한 탓에 제대로 감상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보내며 하늘에 등실 떠있는 구름이나 들뜬에 흐르는 강물과 더불어 무료하게 세월을 보낼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람 없는 빈 골짜기에서 쓸쓸히 지내면서, 운명의 아박함을 한탄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밤을 혼자 보내면서 아름다운 난새가 짝을 잃고 외로이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이 신세를 슬퍼하였습니다.²⁰⁾

위 인용문은 장사(壯詞)의 내용 중 ③과 ④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온 것인데, 이 대목은 물리적 고독이 정서적 고독을 나타내는 기호들과 결합하며 구체적인 정동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여인의 부모는 왜란 중 절개를 지킨 딸을 기특하게 여겨 “한적한 곳으로 피신케 하고 초야에서 임시로 살게” 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한적한 곳’, ‘초야’, ‘사람 없는 빈 골짜기’와 같은 공간적 조건들은 타자의 부재를 시각화함으로써 여인이 처한 ‘물리적 고독’의 상태를 선명히 부각한다. 특히 “그게 벌써 삼년이 되었다”는 시간의 누적은 이러한 물리적 고립이 일시적 사건이 아

20) 〈만복사저포기〉, 61~62쪽.

나라 인물의 삶의 양식으로 고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지했듯이 여인의 이러한 물리적 고독은 정서적 고독과 연동되며 그 의미가 구체화된다. 여인에게 있어 ‘등근 달’과 ‘이름다운 꽃’은 본래 긍정적인 미적 가치를 지닌 대상들이지만 물리적 고립으로 인한 그녀의 정서적 ‘상심’으로 인해 “제대로 감상을 하지 못하고 헛되어 보내는” 무가치한 배경으로 전락한다. 나아가 여인은 자신의 신세를 ‘짜 잃은 난새’에 투사함으로써, ‘홀로 있음’이라는 물리적 사실에 ‘슬픔’이라는 정서적 가치를 강력하게 유착시킨다. 여기서 여인이 자신의 신세를 ‘짜 잃은 난새’에 빚댄 것은 앞서 양생이 ‘원앙’과 ‘물총새’를 통해 토로했던 결핍의 문법과 공명한다. 결국 양생과 여인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음’이라는 물리적 고독이 ‘짜의 부재’에 따른 ‘외로움’이라는 정서적 결핍으로 치환되는 동질적인 정동 경제의 회로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간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만남이 “여귀(女鬼)라는 신이한 존재와 양생이라는 일상적 인물이 지닌 행동과 의지의 상보적 일치성”²¹⁾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해석은 암묵적으로 공유되었다. 그러나 만남의 기제로서 두 인물의 동일성을 단순히 ‘애정 욕망·애정결합의 의지’로 설명하게 되면 작품 내에서 구현되고 있는 동일성의 실체를 놓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두 인물의 결연을 가능하게 한 실질적인 동인은 각자의 삶의 양식에 기반한 고질적 ‘외로움’이 동일한 주피수를 형성하며 서로를 향한 욕망을 추동했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만복사저포기〉의 도입부에서 형상화되는 ‘외로움’은 물리적 고독이라는 실재적 조건과 정서적 고독이라는 심리적 기호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며 구축된 정동적 산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화된 ‘외로움’은 양생과 여인으로 하여금 ‘쌍, 짝, 인연, 배필’이라는 기호를 끊임없이 호명하게 함으로써 욕망의 대상을 강력하게 환기시킨다.

21) 김현양, 「〈만복사저포기〉의 서사적 특성과 장르적 위상」, 『열상고전연구』 15, 열상고전연구회, 2002, 207쪽.

이는 두 인물의 만남이 단순한 서사적 우연에 기대어 발생하지 않음을²²⁾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감정적 동질성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생과 여인의 일차적 마주침은 서로의 몸에 각인된 동질적인 ‘외로움’을 발견하고 승인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대에게서 물리적·정서적 고통이 연동되어 생산된 자신과 동일한 층위의 정동을 인식하며 이를 매개로 서로를 같은 욕망을 공유한 존재로 마주하게 된다. 즉 서사 초반의 ‘외로움’은 두 존재의 몸을 감정적 동질성 위에서 긴밀하게 밀착시키고 접촉시키는 정동적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2) 감정의 비대칭성에 기반한 몸의 구분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양생과 여인의 ‘외로움’은 감정적 동질성을 매개로 하여 두 존재를 결합시키는 효과를 낳지만 그들의 ‘외로움’이 서사 내에서 재현되는 양상은 결코 균질하지 않다. 이러한 재현 양상의 차이는 단순한 정서적 변이를 넘어 새로운 정동적 효과를 창출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작품에서 양생의 ‘외로움’이 서술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조화된다. 첫째는 가족의 부재와 사찰에서의 독거라는 물리적 고립이며, 둘째는 화창한 봄철과 만개한 배꽃나무 등 인물의 내면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계절적 배경의 제시, 마지막으로 양생이 읊는 시(詩)에 나타난 ‘쓸쓸함’과 같은 감정 어휘의 직접적 표출이다. 이와 비교해 여인의 ‘외로움’이 재현되는 방식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양생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22) ‘우연한 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적 자질과 욕망하는 대상이 맺는 관계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예컨대 전기소설의 자장 속에서 함께 이해되고 있는 <최치원>의 경우 욕망하는 대상(자신과 운우의 밤을 나눠주기 바라는 귀녀)이 먼저 포착되고, 이후에 이 대상을 매개로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환기된다. 반면 <만복사저포기> 속 양생과 귀녀의 경우 자신의 삶의 양식에 기반한 고질적인 외로움이 먼저 포착되고 이것을 매개로 욕망하는 대상이 환기된다는 차이를 지니는 것이다.

특히 ‘정동적 과잉’이라 할 만한 서술적 특징을 드러낸다. 여인의 ‘외로움’은 단순히 물리적 상태를 지시하거나 서정적 정취를 환기하는 수준을 넘어 과잉된 진술을 통해 재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현의 비대칭성은 여인의 정동이 양생의 그것과는 다른 서사적 효과와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 이제 혼백마저 쇠하고 상해 갑니다. 그래서 여름의 더딘 석양과 겨울의 기나긴 밤에는 더욱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마저 끊어질 듯합니다. 부디 각황께서는 연민하는 뜻을 삼가 드리워 주십시오. (중략)

여인은 글을 내던지고 오열하였다. 기끔씩 소리내며 흐느껴 울기도 하였다.²³⁾

위는 앞서 인용된 ‘장사(壯詞)’의 내용 중 일부와 그 글을 불상에 올린 뒤 그녀의 행동을 보여준다. 이때 여인의 ‘외로움’은 양생의 그것과 비교할 때 표현의 밀도와 층위에서 확연한 비대칭적 과잉을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감정 서술의 양적 분량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인물의 존재를 장악하고 파괴하는 과정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여인의 정동적 과잉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점에서 양생의 사례와 차별화된다.

첫째, 감정 어휘의 양적 집약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양생의 ‘외로움’이 ‘쓸쓸함’이나 ‘가련함’ 등 소수의 제한적인 어휘를 통해 표현되는 것과 달리 여인의 경우 감정 어휘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인은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나타냄에 있어 ‘상심(傷心)’, ‘무료(無聊)’, ‘쓸쓸히’, ‘한탄’, ‘외로이’, ‘슬피함’ 등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지시하는 다양한 어휘를 집약적으로 배치한다. 양생에 비해 확연히 많은 수의 어휘를 동원하여 감정을 발화하

23) 〈만복사저포기〉, 62쪽.

는 것, 다시 말해 감정 어휘의 양적 우위는 곧 정동의 강도로 치환되어 두 인물의 ‘외로움’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둘째, 정서적 고독에서 신체적 고통으로의 층위적 전이를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양생과 달리 여인은 자신의 ‘외로움’을 구체적인 생리적 통증으로 치환하여 감각한다.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마저 끊어질 듯하다”라는 표현은 정서적 외로움이 인물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감정을 마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신체 내부를 관통하는 실체적 고통으로 재현함으로써 ‘외로움’의 무게감을 비약적으로 증폭시킨다. 셋째, 언어적 토로와 비언어적 수행의 결합이다. 양생의 감정이 주로 ‘시(詩)’라는 정제된 양식을 통해 발화되는 것과 달리 여인은 장사(壯詞)라는 언어적 수단 뒤에 “글을 내던지고 오열”하거나 “소리 내어 흐느껴 우는” 격정적인 비언어적 행위를 덧붙인다. 언어적 표현이 감정을 규정한다면 이러한 비언어적 행위는 규정된 언어를 초과하는 정동의 분출을 시각화한다. 이처럼 양생과 여인의 ‘외로움’은 감정적 동질성을 공유하면서도 그 재현의 양상에 있어 명확한 비대칭을 이룬다.

앞서 살펴본 감정 재현의 비대칭성은 두 인물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만남을 인식하는 관점의 이질성으로 직결된다.²⁴⁾ 특히 불전 아래 숨어 있던 양생이 여인과 조우하여 보여주는 일련의 반응은 이러한 인식의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24) 양생과 여인에게 나타나는 모종의 이질성은 기존 논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예컨대 두 사람의 발원형식만을 비교해보더라도 양생의 “저포놀이라는 회화적 발원형식”과 여인의 장사(壯詞)를 통한 간절한 발원형식은 구별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일용은 양생이 “간절한 소망을 놀이와 점복의 대상으로 회화화”한 것에 대하여 “운명에 대한 자포자기적 태도에서 행해진 냉소적인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43~44쪽.) 그러나 감정의 비대칭성, 여인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을 함께 고려해보면 양생의 유희적인 발원형식 역시 냉소적인 행위라기보다 만남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불전 아래 숨어 있는 양생은 틈새를 통해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마음을 건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불쑥 뛰어나가 말을 건넸다.

“조금 전에 글을 올린 것은 무슨 일 때문이오?”

양생은 여인이 올린 글을 집어 들고 읽어 보았다. 그리고는 얼굴에 기쁜 빛이 가득해져서 여인에게 말했다.²⁵⁾

위 장면에서 양생의 시선은 여인의 비극적 서사보다 외형적 자태와 기능적 정보에 먼저 가닿는다. 양생과 여인은 모두 ‘외로움’을 체현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으나 양생이 타자의 외로움에 대해 심도 있는 공감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생이 여인의 장사(壯詞)에서 선택적으로 포착한 것은 전란의 비극이나 여인이 겪은 처절한 정서적 고통이 아니라, 그녀 역시 자신과 같이 배필을 구하고 있다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여인의 글에는 그녀의 심적 고통이 절절하게 각인되어 있었고, 글을 마친 뒤 그녀가 오열하는 정동의 분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생은 그녀의 눈물에 어떠한 정서적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여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자신의 소망이 달성될 가능성에 매몰되어 “얼굴에 기쁜 빛이 가득해”지는 양생의 모습은 그가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결핍을 채울 수단적 기호로 치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의 부재는 여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욱 명징하게 드러난다. 양생은 여인을 마주한 후 그녀의 신분이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지만 여인의 모호한 답변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 의구심도 품지 않는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홀로 여기에 왔소?”

여인이 대답하였다.

25) 〈만복사저포기〉, 62쪽.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무슨 의심할 일이 있으시나요? 당신께서는 다만 좋은 배필만 얻으시면 되지지요” (중략)

양생은 여인을 유혹하여 판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다.²⁶⁾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여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신 양생에게 “의심할 일이 무엇이나”고 반문하며 그가 오직 “좋은 배필을 얻는 것”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할 것을 종용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인의 답에 대한 양생의 반응이다. 여인의 답에는 정체를 가늠할 만한 정보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양생은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는 기색 없이 즉각적인 야합(野合)을 시도한다. 저포 놀이부터 판방으로의 진입까지 양생에게서 한 치의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가 만남의 대상인 여인의 실체에 대해 헤아려볼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결국 여인을 대하는 양생의 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동적 이질성을 노출한다. 첫째, 양생은 여인의 비극적 처지나 정서적 고통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갖거나 공감하지 않는다. 둘째, 그는 여인의 감정은 물론 존재론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의문을 품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양생이 여인과의 만남을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계 맺음으로 인식하기보다 자신의 고착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양생에게 이 결연은 타자와의 실존적 교감이 아닌 결핍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적 접촉의 성격이 강했기에 진지한 정체 확인이나 정서적 공명은 소거된 채 만남의 속도만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양생이 만남의 대상을 도구화하며 일시적 해소에 집중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양생과의 결연을 대하는 여인의 인식은 훨씬 존재론적이고 영속적인 층위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야합(野合) 이후 시녀의 질문에 답하는 여인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6) 〈만복사저포기〉, 62~63쪽.

“오늘 일은 아마 우연이 아닐게야.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께서 돌보셔서 고운 님을 만나 백년해로하게 된 게지. 어버이께 여쭙지 못하고 혼약을 한 것이 비록 밝은 가르침의 예법을 어긴 것이라고는 하여도, 기쁨을 누리고 즐긴 것은 역시 일생의 기이한 인연이라 할게야.”²⁷⁾

위 인용문에서 여인은 양생과의 조우를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께서 돌보신” 초월적 섭리에 의한 운명적 결합으로 정의한다. 주목할 점은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묻지 않은 채 즉각적인 욕망의 분출로 나아갔던 것과 달리 여인은 이 만남을 “백년해로”라는 수사를 통해 영원하고 지속적인 관계로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여인의 대응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여인은 “부모에게 여쭙지 못하고 혼약을 한 것”이 유교적 예법을 어긴 결합임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함몰되지 않는다. 이는 그녀에게 있어 양생과의 결연이 사회적 규범의 위반을 상쇄할 만큼 실존적 무게를 지닌 “기이한 인연”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인에게 이 만남은 양생과 같은 ‘일시적 해소’의 성격이 아니라, 3년의 고착된 외로움을 끝내고 존재의 완전성을 회복하려는 필연적 수행에 가깝다. 이처럼 양생과 여인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적 동질성을 지니면서도 한쪽은 타자의 존재를 소거한 채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와의 영속적인 결합을 꿈꾸는 비대칭적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감정의 동질성에 의한 접촉’ 이면에 숨겨진 균열을 가시화하며 두 존재의 몸이 같은 시공간에 머무르면서도 서로 다른 정동적 궤적을 그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양생의 외로움이 일상적이고 관념적인 층위에서 발화되는 것과 달리 여인의 외로움은 신체적 해체를 동반한 정동적 과잉

27) 〈만복사저포기〉, 63쪽.

의 상태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의 격차는 만남에 대한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로 직결된다. 양생은 이 만남을 자신의 일시적 결핍을 채울 도구적 방편으로 삼는 반면 여인은 이를 존재론적 회복을 위한 영속적인 결합으로 인식하며 정동적 불균형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의 비대칭성은 단순한 정서적 차이에 머물지 않고 결연에 참여하는 두 몸을 질적으로 구분하고 위계화²⁸⁾하는 서사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외로움’이 신체에 각인되는 방식의 차이가 타자를 지향하는 태도의 차이로 이어지며 두 인물의 몸을 서로 다른 존재론적 층위²⁹⁾에 위치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사 초반의 ‘외로움’의 비대칭적 재현은 외력에 의한 고통의 서사를 신체적 해체로 ‘각인-받는다’ 몸과 자신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타자의 정동을 수단적으로 ‘향유-한다’ 몸을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여인을 ‘타자에게 자신의 실존을 온전히 내맡기는 존재’로 양생을 감정적 연루를 피하며 ‘타자를 도구적으로 소비하는 존재’로 만들어내며 두 몸 사이의 선명한 경계를 구축한다.

28) 사라 아흐메드에 따르면 “감정적 속성은 특정한 주체 혹은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기능하며 ‘타자’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권력관계에 확실히 의존한다.” 예컨대 “감정이 ‘열등한’ 것과 ‘우월한’ 것을 몸의 특징으로 바꿔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몸의 속성”이 될 때 감정적 속성으로 인해 구분된 몸은 위계화된다는 것이다. (사라 아흐메드(2016), 앞의 책, 29쪽.)

29) 이러한 존재론적 차이는 기존 논의에서 언급된 ‘성장치로서의 전기소설 플롯’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다음의 논의들은 그간 전기소설 연구가 “남성중심적 연애 이데올로기가 드러나지 않은 채 고독감이나 비극성의 측면을 강조하여” 과잉해석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조혜란, 「남성 환타지 소설의 시작」, 『여/성이론』 8, 도서출판 여이연, 2003; 김정미,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본고의 ‘외로움’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젠더화된 플롯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상치되기보다 오히려 이를 ‘외로움의 비대칭성과 신체적 층위의 구별’을 통해 구체적인 감정의 역동성 차원에서 보완하고 정교화하려는 시도임을 밝혀둔다.

3) 감정의 적층성에 기반한 몸의 연결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결연의 초기 단계에서 양생과 여인의 몸은 감정 재현의 비대칭성과 인식의 이질성으로 인해 선명히 분절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이 단발적 야합에 그치지 않고 사흘간의 긴밀한 동거로 이어지면서 분리되었던 두 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만복사에서의 초야 이후 두 인물 사이의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여인의 정체성을 암시하는 징후가 서사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한다. 서술자는 양생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과 양생이 직접 목격하는 기이한 정황을 교차시키며 여인의 정체를 단계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생은 상식 밖의 괴이함을 분명히 감각하지만 이를 즉각적인 의심이나 거부로 연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단발적 서술로 소멸하지 않고 ‘여인의 정체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의 등장 → 양생의 기이함 인지 → 상황 판단의 유보’라는 특정한 서사적 형식으로 반복된다. 이때 이러한 반복 구조는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타자의 정체를 규정하려는 이성적 판단을 괄호 치고 그 자리에 정동이 쌓일 수 있는 인지적 여백을 창출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차려 놓은 방석과 작은 상은 화려한 맛이 없고 담박하였다. 하지만 술에서 나는 향내는 정녕코 인간 세상의 맛이 아니었다.

양생은 의아하고 괴이하였다. 하지만 여인의 말소리와 웃음소리는 맑고 고왔다. 얼굴과 몸가짐도 압전하였다. 틀림없이 귀한 집 처자가 몰래 담을 넘어 나와 노는 것이겠지. 양생은 이렇게 생각하며 더이상 의심하지 않았다.³⁰⁾

낭군께서 만일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끝까지 낭군을 모시며 시종들까 하옵니다. (중략)

30) 〈만복사저포기〉, 64쪽.

양생은 이 말을 듣고 한편 감동하면서 한편 놀랐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 당신 말을 따르지 않겠소?”

그러나 여인의 태도는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았다. 양생은 그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다.³¹⁾

첫 번째 인용문은 만복사에서 야합 후 벌어지는 술자리 장면으로 양생이 그녀가 이계의 존재임을 육감적으로 감지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양생은 여인이 내어온 술의 향취가 “인간 세상의 맛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괴이함을 느끼지만 이내 여인의 고운 태도와 몸가짐을 근거로 이성적 의구심을 거두어들인다. 양생은 세속의 질서와 결을 달리하는 수상한 기운을 분명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아함의 원인을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판단의 유보가 단순한 방관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더욱 세밀하고 깊은 시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술자리 이후 여인은 양생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를 낭군으로서 “끝까지 모시”겠다고 고백하는데 이를 들은 양생은 조금 놀라기는 하지만 이내 그녀의 말을 따르겠노라 대답한다. 이때 눈여겨볼 것은 대화에 뒤따르는 양생의 태도이다. 양생은 여인의 태도가 여전히 “심상치 않다”는 직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여인의 정체를 단번에 정의 내리는 논리적 근거로 삼지 않는다. 대신 그는 “그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쪽을 택한다. 이는 기이함의 원인을 파헤치려는 이성적 수사가 아니라 범상치 않은 징후들조차 여인의 실존적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양생의 내면적 전환을 예고한다.

술자리 이후 양생이 여인의 거처인 개령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여인의 정체를 암시하는 서사적 징후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서술자는 이

31) 〈만복사저포기〉, 65~66쪽.

여정 속에 양생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황들을 촘촘히 배치한다.

양생은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의 집들 사이를 지나갔다. 그런데 행인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³²⁾

새벽녘에 이르렀을 무렵, 여인은 양생을 이끌고 풀숲 사이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이슬이 흠뻑 내려 있고, 따라나갈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³³⁾

마침내 그들은 함께 개령동으로 갔다. 그곳은 축대가 들판을 뒤덮었고 가시나무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다.³⁴⁾

양생은 거기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거기서의 생활은 인간 세상과 다름 없이 즐거웠다. (중략) 양생은 그것들이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하지만 정이 깊이 들어서 더이상 생각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았다.³⁵⁾

위에서 행인들이 여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녀가 인간 세계 바깥에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여인의 거처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황폐한 숲속과 가시나무 덩굴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역시 상식적인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징후들이다. 그러나 양생은 이러한 기괴한 징후들을 결연의 중단이나 타자에 대한 거부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성적 의아함을 의도적으로 미뤄둔 채 여인을 따라 움직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생이 이러한 기이함을 목격하면서도

32) 〈만복사저포기〉, 66쪽.

33) 〈만복사저포기〉, 66쪽.

34) 〈만복사저포기〉, 66쪽.

35) 〈만복사저포기〉, 68쪽.

끝내 판단을 유보한 채 그녀의 공간으로 점점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간다는 점이다. 개령동으로의 진입은 단순히 공간 배경의 변화를 넘어, 양생의 공간(만복사)에서 여인의 공간(개령동)으로 이동하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개령동에서 사흘간 머물게 된 양생은 그곳의 생활이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직관적 의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지만 끝내 “정이 깊이 들어서 더이상 생각하지도 염려하지도 않는” 상태에 도달한다. 이러한 변화는 양생이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확보한 자리에 여인과의 정서적 유대를 채워 넣음으로써 여인의 정체에 대한 논리적 규명보다 감정적 결속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⁶⁾ 이처럼 여인의 공간과 정서 안으로 스스로를 윤패시킨 양생의 태도는 이후 여인의 친척들과 만나 시를 나누는 과정에서 ‘외로움’이라는 정동이 폭발적으로 순환하고 공유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심리적 토대가 된다.

개령동에서 사흘을 지낸 뒤 여인은 양생에게 자신의 이웃 친척을 만나 볼 것을 제안하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 여인의 친척들과 양생은 시로써 소회를 나눈다. 개령동에 머무는 사흘의 시간 동안 양생이 여인과 밀도 높은 시간을 공유하며 감정적 결속을 공고히 다졌다면 이어지는 정씨, 오

36) 박일용에 따르면 ‘개령동에서의 동거’는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인귀결합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작품만의 모티프이다. <전등신화> 소개 명혼소설 중 <만복사저포기>와 구성이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등목취유취경원기>와 비교해보면 “등목과 위방화의 부부생활이 등목의 고향인 이승에 이루어지는데 반해, <만복사저포기>에서는 하씨와 양생의 동거가 귀녀 하씨가 머무는 개령동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개령동 동거 이후에 여인들과의 시회(詩會), 부모와의 만남” 장면이 이어지면서 <등목취유취경원기>와는 구성적 차이를 지닌다. (박일용, 『전등신화』 소개 명혼소설과 <만복사저포기>의 귀녀 형상과 그 상징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5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9, 178~179쪽.) 본고에서는 ‘개령동에서의 동거’라는 구성적 특이점에 덧붙여, 이 지점을 두 인물의 관계적 층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결정적 국면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동거 이후 장면들에 나타나는 밀도 높은 ‘감정의 순환’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장면이 인물 간의 정동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관계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씨, 김씨, 유씨와의 시회(詩會)는 그 긴밀해진 유대감 위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구체적인 언어로 표출되는 장(場)이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시회(詩會)에서 ‘외로움’이 공통적이고 집단적인 감정으로 환기된다는 사실이다.

봄 시름에 잠겨 세월가는 것도 몰랐네 / 한스러워라 비익조차럼 / 하늘에서
쌍쌍이 춤추지 못하다니
서러워라 유궁에는 찾는 이 없고 / 푸른 저고리 흐트러지고 귀밑머리 헝클어
졌네
매실 지기 전 오신다던 정약이 어긋났어라 / 베개맡엔 눈물 자국이 얼마나
찍혀 있나
한 봄 내 심사가 너무도 무료해라 / 적막한 공산에서 몇 날 밤을 지냈던가³⁷⁾

위 인용문은 정씨가 지은 시의 일부인데 홀로 오랜 세월을 보낸 여인의 외로움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때 정씨의 시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찾는 이 없는 유궁”과 “적막한 공산”이라는 물리적 고립의 상태가 “비익조”와 대비되는 짝의 부재라는 결핍의 서사로 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봄 시름”, “서러워라”, “눈물 자국”, “적막함”과 같은 정서적 기호들과 연결된다. 주목할 점은 정씨의 시에 나타난 이러한 ‘외로움’의 의미화 방식이 양생과 여인의 ‘외로움’이 의미화되는 문법과 완벽히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들의 슬픔이 개별적인 파편이 아니라 동일한 정동적 지반 위에서 공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외로움’의 반복적 의미화는 정씨를 넘어 오씨, 김씨, 유씨의 시³⁸⁾에서도 연쇄적으로 발견된다. 예컨대 오씨의 시에 등장하는 “나비도

37) 〈만복사저포기〉, 69쪽.

38) 귀녀들의 시가 “외롭고 고독한 심정을 토로하고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축원하는 형태”로 공통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은 김민정에 의해 지적된 것이다. 다만 이 논의에서 “여인들의 각기 다른 성격과 태도로 인해 시를 통해 전해지는 감정 및 심정 등은

오지 않는 깊은 골짜기”는 타자와의 접촉이 근원적으로 단절된 물리적 고립을 드러내며 ‘연꽃·연리지’와 같은 미물을 부러워하는 태도는 인연을 맺지 못한 서러움을 한층 가중시킨다. 결국 이들의 시적 발화는 양생과 여인의 몸을 최초로 접촉시켰던 ‘외로움’의 정동을 끊임없이 변주하고 증폭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기서 귀녀들은 독립된 서사적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라기보다 양생과 여인이 내면화하고 있던 ‘외로움’과 인연에 대한 갈망을 집단적으로 증언하는 “다른 버전의 목소리”³⁹⁾들로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귀녀들의 시는 구체적인 성격을 지닌 개별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양생과 여인이 공유하던 외로움을 확장하고 증폭시키는 정동적 메아리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공통적/집단적 감정으로 환기되는⁴⁰⁾ ‘외로움’은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몸을 하나의 정서적 흐름으로 묶어 세운다.

시를 통해 ‘외로움’이 반복적으로 명명되고 축적되는 과정은 같은 공간

다채롭다”고 이해되었다. (김민정,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정서의 미학」, 『국학연구총론』 13, 태민국학연구원, 2014, 10쪽.) 필자 또한 귀녀들의 시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들로 인해 환기되는 공통적/집단적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서사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이다.

- 39) 김문희는 네 편의 시에 담긴 애정과 관련한 전고를 분석함으로써 귀녀들의 시가 “〈만복사저포기〉에서 정절의 중요성 때문에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풍정에 대한 열망을 보충적으로 말해주는 다른 버전의 목소리”임을 증명한 바 있다. (김문희, 「인물의 내면소설로서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독법」,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74쪽.) 본고는 김문희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특히 이 다른 버전의 목소리들에 양생·여인의 것과 정동적 궤를 같이하는 ‘외로움’이 깊게 각인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이 목소리들의 반복이 감정을 적층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본다.
- 40) 앞서 지적했듯 감정은 “개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 사이를 흐르며 몸의 표면을 만들어낸다.” 이로써 감정은 개인/집단의 특성이 되는 것이다. (사라 아흐메드(2016), 앞의 책, 26쪽): 양생과 귀녀들의 시회 장면은 귀녀의 시에서 ‘외로움’의 정서가 끊임없이 환기되면서 이 감정이 양생/하씨/귀녀들 사이를 흐르며 이 정서가 집단의 특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에 있는 모든 주체의 감정을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시킨다. 사흘간의 긴밀한 동거로 예열된 양생과 여인의 결속은 귀녀들의 ‘정동적 메아리’를 통과하며 개인의 정서를 넘어선 거대한 정동의 파고로 격상된다. 반복되는 시어들은 주체들 사이를 흐르며 그들을 하나의 감정 공동체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감정의 적층성은 재현의 비대칭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존재론적 층위에 있던 몸들을 결합시킨다. 양생은 이제 타자의 고통을 관망하는 외부자가 아니라 켜켜이 쌓인 집단적 외로움에 완전히 감염된 채 여인의 몸과 정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3.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의 서사적 의미

지금까지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이 단순한 인물의 심리 상태를 지칭하는 감정적 자질이 아니라, 몸과 몸을 접촉시키고 구분하며 끝내 연결해내는 역동적인 정동 순환의 과정임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감정의 작동 방식은 텍스트 내에서 중층적인 서사적 의미를 창출한다. 여기서는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의 서사적 의미를 ‘주체 전환의 매개성’, ‘문학적 형상의 구체성’, ‘장르적 연구의 확장성’ 이렇게 세 가지 층위에서 논함으로써 〈만복사저포기〉가 지닌 미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만복사저포기〉에서 ‘외로움’은 주인공 양생의 존재론적 전환을 기인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 이 작품의 경우 두 인물의 만남 자체에 서사적 관심을 집중⁴¹⁾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혼의 당사자인 양생이

41) 김현양에 따르면 〈만복사저포기〉와 비슷한 서사구조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설화들과 이 작품을 비교했을 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인귀 결합 설화들은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서사가 구축된다. 첫째, 인귀결합을 통해 일상인물의 현실적 소망이 성취됨. 둘째, 인귀결합을 통해 신이한 인물의 원한이 해소됨. 그러나 〈만복사저포기〉의 경우 이야기의 초점이 이 둘 모두에 있지 않고, 두 인귀의 만남 자체에 서사적

여인에 대한 이해를 매개로 변화를 겪는 과정”⁴²⁾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때 양생이 도달한 ‘이해’의 실체는 단순히 여인이 ‘귀녀(鬼女)’라는 물리적 진실을 깨닫는 차원이 아니다.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확증하는 순간은 사실상 보련사 재회 이후 그녀의 직접적인 고백을 통해서이며 그 이전의 시간들은 오히려 ‘외로움’이라는 정동이 양생의 신체에 깊숙이 각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만복사에서 두 인물의 몸이 처음 마주칠 때 양생은 타자의 외로움을 자신의 결핍을 채울 도구적 수단으로 소비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개령동이라는 공간에서 사흘간 머물며 그는 기이한 징후들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유보한다. 그리고 이 유보된 이성의 자리를 채운 것은 여인과 그녀의 친척들이 집단적으로 토로하는 ‘외로움’의 정동적 메아리였다. 반복되는 외로움의 기호들은 양생과 여인들의 몸을 하나의 정서적 흐름으로 묶어세우며 외로움을 개별자의 고립된 감정이 아닌 정동적 공동체의 집단적 감정으로 환기시킨다. 이 과정에서 양생은 타자의 고통을 관망하는 외부자에서 벗어나 몸으로써 연결된 감정의 주체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양생의 변화는 여인의 정체를 완전히 알게 된 직후 나타나는 그의 반응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다. 개령동에서의 만남이 마무리될 즈음 양생은 여인으로부터 은주발을 건네받고 보련사로 향한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은주발은 여인의 무덤에 부장되었던 순장물이며 이를 매개로 양생이 여인의 부모와 마주하게 되면서 여인의 정체에 대한 진실이 폭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김현양(2002), 앞의 논문, 203~206쪽.)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두 인물의 만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두 인물의 만남 자체에 서사적 관심을 집중시킨 의도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해 양생과 여인의 만남 전체를 아울러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작동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정동의 순환에 따라 주체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42) 박일용(2004), 앞의 논문, 35~36쪽.

된다. 여인으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들은 양생은 그녀의 영혼을 전송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녀가 귀신이었음을 실감하며 깊은 슬픔에 잠긴다. 소설 서두의 시를 제외하면 양생의 감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서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할 때 여인을 떠나보낸 뒤 양생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다. 양생이 지은 제문에는 귀녀의 처지와 그녀가 겪은 ‘외로움’에 대한 깊은 공감이 투영되어 있으며, 전날의 자취를 더듬어 시신이 안치된 곳을 찾아가 행한 애통한 장례 의식은 그의 변화를 실증한다. 특히 전답과 가옥을 모두 팔아 시흘 저녁 계속해서 재(齋)를 올린 행위는 그의 애도가 단순히 죽은 자에 대한 예우라는 피상적 층위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자신이 체현한 외로움과 타자가 체현한 외로움이 ‘몸’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양생은 비로소 타자를 ‘도구’가 아닌 ‘실존’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깊은 공감에 기반한 애도는 양생이 세속의 질서를 버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는 존재론적 전환의 결정적 동인이 된다. 즉 〈만복사저포기〉에서 ‘외로움’은 타자와의 정서적 공명을 통해 주체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이행시키는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만복사저포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인물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수사적 장치를 넘어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인 문학적 형상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사적 의의를 획득한다. 일반적인 서사물에서 감정은 특정 사건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나 배경적인 정취로 머무는 경우가 많으나 〈만복사저포기〉의 ‘외로움’은 서사 전체를 관통하며 텍스트 내적 세계의 질서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재편하는 미학적 동력으로 작용한다.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은 표현되는 양상이 매우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서사의 특정 국면에서 단발적으로 소비되는 소재에 그치지 않고 정동 경제의 회로를 형성하며 서사 전반의 필연성을 확보한다. 외로

움이 추상적인 관념을 벗어나 신체의 접촉을 유도하거나, 몸과 몸의 경계를 구분 짓고 나아가 타자의 정동을 자기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연결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은 이 작품이 감정을 얼마나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실체로 다루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서사의 인과관계를 논리적 합리성이 아닌 ‘정동적 필연성’으로 대체한다. 즉 〈만복사저포기〉의 문학적 성취는 외로움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정동 경제의 회로 속에서 구체적인 ‘효과’로 형상화해냄으로써 텍스트 전체를 감정 중심의 역동적인 구조로 재구축했다는 데 있다. 이는 고전소설에서 감정이 사건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나아가 공간의 성격과 인물의 관계망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서사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만복사저포기〉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육체성을 부여하고 그것의 순환과 축적을 통해 서사를 밀고 나감으로써 감정 미학의 정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은 그간 전기소설(傳奇小說) 장르를 규정해 온 핵심 정서인 ‘외로움’의 담론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기존 연구에서 전기소설의 주인공들이 공유하는 고독과 외로움은 주로 ‘불우한 문사’라는 계층적 특성에 기반한 동질적인 감정 자질로 이해되어왔다. 즉 외로움은 인물의 사회적 처지에서 기인하는 고정된 속성이자 장르적 전형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서 취급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수행한 ‘외로움’에 대한 정동적 분석에 따르면 감정이 작품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서사적 효과를 산출하는지에 따라 작품별로 전혀 다른 결의 ‘외로움’이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본고의 논의는 전기소설 속에 편재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작품별 작동 방식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만복사저포기〉에서 확인된 ‘외로움’의 동질성·비대칭성·적층성에 기반한 몸의 접촉·구분·연결의 과정은 감정이 어떻게 개별 주체의 실존적 전

회를 이끌어내는지를 미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만복사저포기〉에 대한 ‘외로움’의 재고찰은 전기소설 연구의 지평을 감정의 ‘상태’에서 ‘작용’으로, ‘보편성’에서 ‘개별적 구체성’으로 확장시킨다. 이는 고전소설 속의 감정이 지닌 고유한 생명력을 복원하고 텍스트가 지닌 미적 성취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한다.

4. 나가며

본고는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을 인물의 내면에 고착된 정적 자질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동적 전회’의 관점에서 감정이 어떻게 인물의 신체를 형성하고 서사를 추동하는 역동적 기제로 작동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외로움의 작동 방식과 그에 따른 신체적 양상을 세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감정의 동질성에 기반해 몸이 접촉되는 과정을 통해 양생과 여인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을 넘어 주체들 간의 정동적 인력에 의한 필연적 만남임을 규명하였다. 둘째, 감정의 비대칭성에 기반해 몸이 구분되는 과정을 통해 외로움이 신체에 각인되는 방식의 차이가 타자를 지향하는 태도의 차이로 이어지며 두 인물의 몸을 서로 다른 존재론적 층위에 위치시키고 있음을 살폈다. 셋째, 감정의 적층성에 기반해 몸이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개별적 감정이 어떻게 집단적 정동으로 증폭되어 인물들의 신체를 하나의 정서적 흐름으로 묶어세우는지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만복사저포기〉의 ‘외로움’은 단순한 슬픔의 수사를 넘어 주체와 타자를 잇고 때로는 구분하는 능동적인 정동 경제의 산물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외로움’의 서사적 의미를 세 가지 층위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외로움’은 양생으로

하여금 타자의 고통을 자기 신체에 각인시켜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지리산으로 은거하게 하는 ‘주체 전환의 매개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은 서사의 특정 국면에서 단발적으로 소비되는 소재가 아니라 정동 경제의 회로를 형성하며 서사 전반의 필연성을 기인하는 ‘문학적 형상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만복사저포기>의 ‘외로움’은 인물의 처지에 수반되는 부수물이 아닌 작품의 세계관을 능동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원리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고찰은 전기소설 속의 ‘외로움’을 ‘동질적 덩어리’로 파악하던 기존 담론을 넘어 작품별 발현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는 ‘미시적 독해’의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고전소설 속 감정이 지닌 생생한 신체성과 역동성을 복원함으로써 텍스트의 미적 가치를 현대적인 정동 이론의 틀 안에서 재해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이 글은 ‘외로움’이라는 특정 정동의 순환 구조에 집중함에 따라 작품 내에 존재하는 다른 미세한 감정의 결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만복사저포기>라는 개별 작품에 논의가 치중되어 한국 전기소설 장르 전반에 걸친 정동의 지형도를 세밀하게 조망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다른 전기소설들과의 비교 분석을 심화함으로써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작은 시도가 고전소설의 감정 미학을 보다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다양한 학술적 경로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심경호, 『매일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1~382쪽.
- 김경미,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13~242쪽.
- 김문희, 「인물의 내면소설로서〈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독법」,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65~95쪽.
- 김민정,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정서의 미학」, 『국학연구통춘』 13, 태민국학연구원, 2014, 1~25쪽.
- 김현양, 「〈만복사저포기〉의 서사적 특성과 장르적 위상」, 『열상고전연구』 15, 열상고전연구회, 2002, 193~219쪽.
- 데버러 럽턴, 박형신 역, 『감정적 자아』, 한울아카데미, 2016, 1~348쪽.
- 라르스 스벤젠, 이세진 역, 『외로움의 철학』, 청미, 2019, 1~251쪽.
- 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33~58쪽.
- _____, 「『전등신화』 소재 명혼소설과 〈만복사저포기〉의 귀녀 형상과 그 상징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5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9, 175~208쪽.
-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 전기소설 서사문법의 규명을 위한 예비적 작업」, 『민족문학사연구』 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5, 120~140쪽.
- 백민정,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고독’과 ‘사랑’의 심리학적 이해와 문학적 의미」,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2007, 207~232쪽.
- 사라 아흐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오월의 봄, 2023, 1~568쪽.
- 알리 라라 외, 권명아 외 역, 『정동 연구 지도제작』, 갈무리, 2025, 1~368쪽.
- 윤재민, 「전기소설의 인물성격」,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53~67쪽.
- 이정은, 「외로움과 정치 혐오-한나 아렌트의 고독과 외로움의 의미 변화에 기초하여」, 『시대와 철학』 3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4, 91~126쪽.
- 정혜경,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감정 미학: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현씨양옹쌍린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221쪽.

- 조혜란, 「〈만복사저포기〉와 〈봄밤〉, 비추어 읽는 사랑의 서사」, 『탈경계인문학』 36, 이화인문과학원, 2025, 85~110쪽.
- _____, 「남성 환타지 소설의 시작」, 『여/성이론』 8, 도서출판 여이연, 2003, 126~143쪽.
- 페이 바운드 알베르티, 서진희 역, 『우리가 외로움이라 부르는 것에 대하여』, 미래의 창, 2022, 1~367쪽.
- R. G. 콜링우드, 김혜련 역, 『상상과 표현: 예술의 철학적 원리』, 고려원, 1996, 1~404쪽.

ABSTRACT

The Narrative Significance of Emotion in *Manboksajeopogi*
: Focusing on the Body Shaped by ‘Loneliness’

Im, Jeong-min

This study aimed to reexamine the narrative meaning of ‘loneliness’ in 〈Manboksajeopogi〉 through the lens of the latest affect theory, known as the ‘affective turn’. It particularly focused on how the emotion of ‘loneliness,’ traversing the entire narrative, induces practical changes in the subject’s body and relationships.

Chapter 2 analyzes the operational mechanisms of loneliness and its corresponding bodily manifestations across three dimensions. First, it demonstrates that the encounter between Yangsaeng and the woman transcends mere coincidence, becoming an inevitable meeting driven by affective attraction between subjects, based on the process of bodily contact rooted in the homogeneity of emotion. Second, based on the asymmetry of emotion, it examined how the process of bodies being distinguished leads to differences in how loneliness is imprinted on the body, resulting in differing attitudes toward the other and positioning the two characters’ bodies on distinct ontological layers. Third, based on the layering of emotions, it analyzed how individual isolation is amplified into collective affect through the process of bodies connecting, binding the characters’ bodies into a single emotional current. This process demonstrates that ‘loneliness’ is a practical energy mediating between bodies.

Chapter 3 discusses the narrative significance of ‘loneliness’ in 〈Manboksajeopogi〉 based on this analysis. ‘Loneliness’ possesses a ‘mediating agency for subject transformation,’ compelling Yangsaeng to imprint the suffering of others onto his own body, abandon worldly values, and retreat to Mount Jiri. Furthermore, ‘loneliness’ is not merely a motif consumed sporadically at specific narrative junctures: it forms

circuits of affective economy and secures the 'concreteness of literary form' that grounds the narrative's overarching inevitability. In conclusion,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elevating emotion within classical novels from an accessory accompanying a character's circumstances to a core principle that actively reconfigures the work's worldview. This transcends existing discourse that perceived 'loneliness' in early novels as a homogeneous mass, opening new horizons for genre studies that focus on the micro-manifestations of affect and their differences.

Key Words <Manboksajeopgi>, Affective Turn, emotion, circulation, effect, loneliness, body

논문투고일: 2026.01.17.
심사완료일: 2026.02.03.
게재확정일: 2026.02.05.